불교수익사업은 '正命사업'이어야

현불논단



조기룡 교수
동국대 대학원 부디스트비즈니스학과

얼마 전 조계종 총무원 사업부에서 전화가 왔다. "이번에 종단의 사업지주회사인 ㈜도반HC와 CJ그룹의 제일제당이 공동으로 '사찰식 팥죽'을 개발해 출시했기에 보내주겠다"고 했다. 평소에 한국불교의 수익사업에 대해 고민이 많았던 필자가 종단수익사업의 연구에 동참을 해왔기에 담당자가 배려를 해 준 것 같다. '사찰식 팥죽'은 팥, 수수, 현미, 차좁쌀, 찰보리쌀 등 곡물의 식감이 그대로 느껴졌으며 무엇보다 달지 않고 담백한 건강식이라는 느낌을 주었다. 현재 이외에도 조계종 ㈜도반HC와 CJ제일제당은 '꽈리고추 식물성 장조림'과 '사찰식 왕교자'도 판매한다. '꽈리고추 식물성 장조림'은 식물성 원료로 만든 콩고기 장조림이고, '사찰식 왕교자'는 고기와 오신채를 넣지 않은 야채만두다.

한국불교는 기도금과 보시금 등의 종교적 수익에 의해서만은 종단과 사찰의 유지조차 어렵기 때문에 판매와 임대 등의 세속적 수익사업을 하고자 한다. 이런 상황에서 금번 조계종 ㈜도반HC와 CJ제일제당의 사찰식 음식판매는 종단 수익 창출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는 여기에 더해서 한국불교의 수익사업이 '정명적(正命的)'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팔정도의 정명은 불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생업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불교의 수익사업은 물건을 사고파는 상업행위에 머

불교 윤리·도덕적 사업들 추구
소비자, 직원 등 이익 바탕돼야
살생 없는 비폭력 사업도 필요

물러서는 안 되고 목적과 수단이 불교적이어야 한다.

한국불교의 수익사업이 정명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윤리적, 사회적, 비폭력적 사업이어야 할 것이다. 윤리적이란 사업이 수익을 추구하더라도 정직하고 도덕적 방식으로 운영되는 윤리적 경영을 의미한다. 정직한 광고와 친환경적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사회적이란 사업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수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의미한다. 수익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비폭력적이란 생명을 해치는 일이 수반되지 않는 불살생적 사업을 의미한다. 농사를 짓더라도 살충제 등의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으로 짓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불교가 수익사업을 정명적으로 실천하고자 한다면, 이해 관계자의 행복, 정직한 마케팅, 환경 보호를 우선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직원과 파트너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행복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것이다. 소비자를 속이지 않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것이다. 사업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등 자연을 해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하는 것이다.

조계종 ㈜도반HC와 CJ제일제당이 공동으로 사찰음식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수익사업은 고기를 사용하지 않고 건강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정명적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사업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거나 환경 보호 및 사회적 문제 해결에 사용한다면, 보다 더 정명한 사업이 될 것이다. 만일 한국불교의 종단과 사찰이 이윤이 남는다고 불교적 가치와는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비정명적으로 한다면, '부처님 팔아서 장사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삐뚤어진 욕망과 한국사회

세간과 출세간



박수호 교수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올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다. 뜨거운 대기로 숨쉬기조차 어려웠고, 사회 곳곳에서 이데올로기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불쾌지수를 높였다. 그런 와중에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건(이하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이 세상을 뒤흔들었다. 2020년부터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학생·교원 등 교육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유포되는 디지털 성범죄 행위가 2024년 8월 말 동시다발적으로 발견되면서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인물의 얼굴, 목소리, 동작 등을 사실적으로 조작하는 기술이다. 딥페이크를 통해 만들어진 영상은 진짜와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 거짓 정보를 사실처럼 왜곡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처럼 본인 동의 없이 개인의 얼굴을 다른 영상에 합성함으로써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성희롱 피해 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일종의 디지털 둔갑술이라서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다분하다. 상상을 초월하는 신기술의 악마 같은 모습에 경악을 멈출 수 없을 지경이다.

그런데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을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면 신기술의 현란함과 성범죄라는

'지인 능욕' 목표 딥페이크 범죄
아는 이마저 혐오 대상화 '충격'
자타불이 불교 세계관 일깨워야

말초적 욕망 너머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어두운 그림자들이 더 선명해진다.

이 사건에 한정한다면 가장 짙은 어둠은 직간접적 피해자인 여성들의 불안이다. 보편적 인권이라는 가치 속에서 차별과 불평등 해소를 향해 가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여 '생존'을 호소하는 이들의 고통을 언제까지 외면해야 할까?

또 다른 그림자는 급락하는 교육의 위상이다. 교육은 사람다운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사회를 통합하고 세대를 넘어 지속시키는 핵심 기제이다. 그 주체와 공간이 조롱의 대상이 되어 버린 참담함을 어떻게 떨쳐야 할까?

딥페이크 영상 제작을 의뢰하면서 혹은 그런 영상이 유포되던 디지털 공간의 명칭에 사용된 '지인 능욕'이라는 말은 이제껏 보이지 않던 어둠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 거세진 세계 각국의 극우적 움직임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로 나타났다. 이 차별과 배제가 약자를 넘어서 사회 구성원 서로를 향하기 시작하면서 호명된 것이 '혐오'이다.

이제 사람들은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차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노골적으로 혐오의 감정을 내비친다. 그런데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 속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은 '지인'으로 구체화 되었고, 능욕의 대상이 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제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으로 모자라 내가 아는 이를 짓밟고 싶은 욕망이 차오르는 단계에 도달한 것이다.

자타불이의 연기적 세계 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고통을 줌으로써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존재 기반을 스스로 허무는 짓임을 모르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들의 허망함을 깨우쳐 주는 것이야말로 불교의 시대적 사명일 것이다.

社 說

온라인 수행 챌린지, 잘 정착되려면…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수행 챌린지'가 입소문을 타고 확산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조계종 미래본부가 추진하는 '하루 5분 선명상 캠페인'이다. 이는 지난 9월 28일 열린 '2024 국제선명상대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안한 '하루 5분 선명상'의 실천방안으로 미래본부가 제작한 '선명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뤄진다. 이를 통해 하루 5분 선명상을 접한 캠페인 동참자들의 호응도 뜨거운 것으로 알려졌다.

동안거를 맞아 이뤄지는 온라인 수행 챌린지들도 눈길을 끈다. 조계사 청년회는 동안거를 맞아 11월 15일부터 '조계사청년회 아침명상 시즌3'를 진행 중으로 30명의 청년 불자가 매일 아침을 명상으로 열고 있다. 불광미디어도 11월 15일 네이버 밴드에서 '동안거 사경 프로젝트'를 개시했다.

이 같은 온라인 수행 챌린지의 확산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느슨한 연대'라는 라이프 트렌드와 연계된다. 시간과 장소, 관계,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느슨한 연대감을 추구하는 온라인 수행 챌린지는 열린 종교를 표방하는 불교에게 맞는 신행 트렌드이기도 하다. 특히, 스마트폰 활용과 챌린지 놀이문화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에게는 안성맞춤형 포교 방법이다.

온라인 수행 챌린지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늘 그랬듯이 종단과 일선 사찰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제 태동한 온라인 수행 챌린지 문화가 잘 정착되길 기대한다.

국보 '지광국사탑' 복원 회향에 부쳐

'승탑의 백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국보)이 113년 만에 본래 자리에서 제 모습을 찾았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원주시는 11월 12일 법천사지 유적전시관 앞에서 복원 기념식을 열고 지광국사탑이 제 모습을 찾은 의미를 되새겼다.

지광국사탑은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사지에 세워졌던 고려 시대 국사 해린(海麟, 984~1070)의 승탑으로 독특한 구조와 화려한 조각, 뛰어난 장엄장식으로 역대 가장 개성 있고 화려한 승탑으로 손꼽힌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에 의해 팔려나가 일본과 한국을 오갔고,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에서는 경복궁의 장식재로 활용됐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에는 폭탄에 맞아 상륜부와 옥개석이 파손됐다. 전쟁 이후에도 해체와 이전을 반복하다 1990년에 이르러서야 국립고궁박물관 뒤뜰로 자리를 잡았다.

지광국사탑 보존처리 및 환지본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지원 등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일제에 의해 자리를 떠난 불교의 성보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간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렇기에 현재 본래 자리를 떠나 박물관 소장품으로 활용되는 성보문화유산들의 제자리 찾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서산 보원사지 철불, 갈항사지 동서삼층석탑, 하사창동 철조여래좌상 등이 대표적이다. 지광국사탑 환지본처를 계기로 이들 성보문화유산의 환지본처 논의도 이뤄지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8년(2024) 11월 20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대산스님 24주기 추모다례재



대한불교삼론종은 11월 11일 종정 혜승 스님을 모시고 충주 대산정사에서 중흥조 대산스님 열반 24주기 추모 다례재를 봉행하였기에 이를 알립니다.

불기 2568년(2024) 11월 20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11월 20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